

민주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 진통

시도당 후보들 주말 회동서 결론 못내…주내 결정키로
후보 등록 막판까지 입장차…경선 가능성도 배제 못해

민주당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를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를 놓고 후보 등록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광주시당위원장에 뜻이 있는 이병훈(동남을), 조오섭(북구갑), 민형배(광산을) 의원은 현 위원장인 송갑석(서구갑) 의원 중재로 회동을 갖고 합의 추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시당위원장에 뜻이 있는 3명의 의원들이 모여 간단히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며 “일단 경선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당 위원장 합의 추대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과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의원은 지난 18일 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의원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전남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경선 및 합의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시도당 대의원 대회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3일께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2주 정도의 선거 운동 기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선거 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4일만 주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 대의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단독 후보면 8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찬반 투표를 통해 인준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위원장을 노리는 일부 의원들은 경선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의 모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경선도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였으며 광주 모 의원 측은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 경선 서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자기 위원장이 오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나름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다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시도당 위원장을 지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는 셈이다.

당장, 광주시당·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차기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구도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두고, 지역 의원들의 진영도 미묘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이 치러진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그리 밝지 않다. 전체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초·재선이 17명이나 되는 상황에

서 정치적 결집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여가가기보다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 도전에 나서는 의원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두고도 지역 정치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지금까지 쓴 소리 한 마디 못하고 있는데다 과감하게 최고위원에 도전하기 보다는 시도당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별진료소 찾은 이용섭시장

17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효죽공영주차장에서 이용섭(뒷줄 왼쪽)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이 보건소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절차 착수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등 초안 마련 전문가 자문 중

한국전력이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식 절차에 착수했다. 한전공대 지원 특별법(가칭)의 내용의 대부분을 확정했으며, 이를 의원 입법 발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안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국전력,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한전공대의 초대 총장 후보자이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의

준 서울대 연구처장이 한전공대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을 선결과제로 삼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별법 초안에는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학사 업무 자율성 보장, 인허가 등 규제 완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안은 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한전은 조만간 최종안을

만들어 산자부, 국회 등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전력산업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에 있어 자주성, 대학 재정의 안정성, 대학 캠퍼스 설립의 신속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금 6410억원, 연간 600억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유치과정에서 매년 200억원씩 10년간 2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의 학생을 정원으로 하는 한전공대는 오는 2050년까지 전력·에너지 분야 글로벌 ‘톱(TOP) 10’ 수준의 공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 5급 이하 460명 전보인사 단행

광주시는 “20일자로 5급 93명, 6급 이하 367명 등 460명 규모의 하반기 5급 이하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명단 21면〉 이번 5급 이하 인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보인사 규모를 최소화했으며, 1년 미만 전보제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한 본인 희망부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부서별 균형인사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과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역량 강

는 직원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내에선 그동안 상수도 전문가를 지정하는 특정 공무원들이 순환배치되며 상수도 업무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추가 배치가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보인사에 따른 신속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업무누수를 방지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자치구 직원 전입과 신규 공채 직원 임용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점검

목포 외달도·여수 웅천 등 15곳

전남도가 코로나 19 사태 속에 전국 최초로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한 도내 15개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10일부터 ‘영광 가마미’, ‘장흥 수문’, ‘진도 가계’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5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인 개장에 들어갔다. 올해는 여름 휴가철에 국내 여행지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 외달도를 비롯 여수 웅천, 고흥 풍류, 장흥 수문, 해남 송호, 함평 돌머리, 영광 가마미송이도, 완도 신지명사십리, 진도 가계급급, 신안 대광백길장동어 해수욕장 등 15개소에 대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실시 중이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이용자가 해양수산부 ‘바다여행’(www.seantour.kr) 및 도,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해수욕장과 날짜, 시간대를 미리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예약자는 예약된 날짜에 주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손목 밴드를 착용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18일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사전 예약제의 운영 상황과 ‘코로나19’ 방역 준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완도군은 완도대교 등 주요 진입로에 해수욕장 이용객 등 방문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 중이며, 사전예약자는 별도로 마련된 안심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사전 예약제 뿐만 아니라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혼잡도 신호등 제도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 중이다.

해상 대형스크린 및 방역게이트 설치, 스마트드론 운영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와 함께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장마철 집중호우 ‘산사태 예방’ 총력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대비책을 마련, 도민 안전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산사태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 피해지에 대한 신속 복구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전남에서만 10.33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등 산사태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특히 산간지역의 경우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

이 솟구치거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추고, 바위가 없는데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 등이 발생되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사·군에서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집중호우 기상정보 모니터링을 비롯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대피 체계 사전구축 등도 마쳤다.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방댐 16개소와 계류보전 33km, 산지사방 16ha 등에 대한 사방사업을 완료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음이 제 몸을 뒀다
김 유 석

오랜전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 지 하

새, 블랙박스
양 수 역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 선 예

그녀의 외로움은 B형
- 新 글러브 동독자 마 경 역

사교상자의 이설
전 다 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 혁 재

메타본세카이어 시선
강 대 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등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